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의미

- 부활절 메시지 -

창세기 2:16-17, 요한복음 11:25-26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 하셔서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하여 강단메시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나아가, 세계를 살릴 237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부활은 성경과 복음의 핵심사건이다. 창세기 2 장과 3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부활은 이 근본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 11 장에 기록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아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같지만 부활과는 차이가 있다. 소생은 30 살에 사망했다면 30 살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완전히 변화된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다. 소생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늙고 병들과 죽게 된다. 그러나 부활체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소생한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다. 엘리야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20 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 장 51 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16 절에서 17 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정확히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 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 일 동안 활동하신 내용과 목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사흘 후 새벽에 빈 무덤을 보게 되었다. 마태복음 28 장 1 절에서 2 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과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확신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메시지를 주셨다. 그 부활메시지는 내양을 먹이는 것과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다. 또한 500 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 장에 보면 마지막 40 일째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 일 동안에 하신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부활을 증거 할 제자들을 모우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들로 부활을 증거 할 제자로 만드는 것이 부활 후 40 일 동안 집중하셨던 절대 목표였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 명(여자와 어린이 포함 500 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이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가 되었다.

2. 두 번째에서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

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는 기절설이다.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창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이다.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는 것은 창이 심장을 찔렀다는 증거이고 그 물은 심장 안에서 피와 분리된 혈소판(투명색)이라는 증거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 안에서 피와 혈소판이 분리된다고 한다. 즉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사망했다는 증거이다.

(2) 두 번째 주장은 도난설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과 성도들이 훔쳐 갔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1 제자는 모두 순교하는데 자신들이 훔쳐 간 시체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3) 세 번째는 환상설이다.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두 사람이 헛것을 보았다면 모르겠지만 500 명이 일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역사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가장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예수님이 역사상 존재했다는 증거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장군이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자료보다 적어도 100 배에서 수백 배 많은 증거와 역사적인 사료들이 존재하고 있다.(과학적인 검증과 역사적인 검증의 차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그 어떠한 타당한 증거도 없다.

3. 세 번째에서는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로 부활은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도 다시 부활체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했던 것이다.

(2) 두 번째로 부활은 복음이 완성된 사건이다. 구원의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부활하셔야만 구원의 모든 편집, 설계, 디자인은 완성되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이다. 죄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출소했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증거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망하신 후 옥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부활 후 우리들은 하늘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보좌의 영광과 능력

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곳이고 형언 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부활은 그 모든 누림의 시작인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부활은 모든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과 늙어가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행방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축복은 어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보겠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싫어하여 핍박을 하였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에서 부활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붙잡아야 할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핵심적이 복음의 언약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24 시간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현장에 도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하여도 답과 응답과 해답이 보일 것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부활의 의미를 묵상해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300, 30, 3 그리고 70 현장을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그 의미와 능력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